

#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ND SCRUTINY

Amartya Sen

번역: 우연경 청년활동가

Office of Environment and Social Development

Asian Development Bank

June 2000

1. 평가 및 평가의 과제
2. 빈곤, 역량 결핍, 그리고 사회적 배제
3. 역량 결핍의 관계적 특징
4. 배제의 언어
5. 사회적 관계: 헌법과 수단적인 중요성
6. 적극적 배제와 소극적 배제
7. 장기 실업과 배제: 예시
8. 유럽의 기원, 보편성의 중요도 및 아시아에서의 사용
9.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실용적인 근거
10. 정책적 이슈: 사회적 기회의 공유
11. 정책적 이슈: 아시아의 위기와 안전 보장
12. 정책적 이슈: 민주주의 정치 참여
13. 정책적 이슈: 배제의 다양성
14. 결론

## 머리말

이 논문은 개발 및 빈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개발 문제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발간되는 사회 개발 논문 시리즈 중 첫 번째 논문이다. 우리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논문이 노벨상 수상자인 Amartya Sen의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빈곤의 차원-사회적 배제-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물질적인 차원과 비물질적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이런 명백한 실체성 때문에, 많은 개발 전문가들은 빈곤의 물질적인 차원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음을 깨닫는다. 빈곤층이 참여와 기회 및 활동에 대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인식되고 다뤄져야 할 중요한 빈곤의 비물질적인 차원이다. 이 논문은 사회적 배제가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나는 이 논문에 실린 아이디어들이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첫째, 개발 전문가들이 빈곤의 비물질적 차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돕는 것. 둘째, 개발 전문가들이 빈곤 감소의 차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토론이 열리도록 촉진하는 것.

Kazi F. Jalal

Chief, Office of Environment and Social Development

## 감사의 말

이 논문은 1998년 본래 아시아 개발 은행(ADB)을 위해 쓰인 사회적 배제: 개념 및 관련성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였고, 이는 1999년 8월 개정되었다. 이전 버전에 대한 코멘트를 포함하여 유익한 토론을 위해 힘써준 Tony (A. B.) Atkinson, Bhuvan Bhatnagar, Arjan de Haan, Rana Hasan, K.F. Jalal, Anita Kelles-Viitanen, Haidar A. Khan, Jean-Luc Maurer, Henry Neuberger, Gunilla Olsson, Timothy Smeeding, 그리고 Mohammad Yunus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의 발표도 도움이 되었다. (1) 포용 혹은 배제: 아시아와 유럽을 위한 사회 개발 도전 과제(ADB 세미나), (2) 소득과 부의 연구를 위한 국제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의 기조연설(1998년 2월 27일, 케임브리지), (3) 사회적 배제에 대한 ADB세미나(1998년 9월, 마닐라)

Amartya Sen

## 1. 평가(Evaluation) 및 평가(Assessment)의 과제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다. 약 25년 전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한 르네 르누아르(Rene Lenoir)에게 이 표현에 대한 저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이미 빈곤과 결핍에 대한 토론과 논문이 상당했었다. 이 주제에 대한 문헌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광범위한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르네 르누아르(프랑스 정부의 Secrétaire d'Etat a l'Action Sociale)은 프랑스의 실용적인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를 다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배제된”것으로 설명했고, 이는 프랑스 정부의 1/10을 차지한다.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 잠재적 자살자, 나이든 병약자(aged invalids), 학대 아동, 약물 남용자, 비행소년, 편부모, 다양한 문제를 가진 가정, 소외(marginl), 반사회적인 사람들, 그리고 기타 사회 ‘부적응’.

르누아르의 선구적인 작업을 뒤이은 문헌은 이미 충분한 이 “사회적 배제” 리스트에 많은 양을 덧붙혔다. 실버(Silver)는 문헌에서 사람들이 배제된 항목으로 다음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생계, 안전, 영구적인 고용, 수입, 재산, 신용 또는 토지, 주택, 최소 또는 일반적인 소비 수준, 교육, 기술, 그리고 문자적 자본, 복지 제도, 시민권 및 법적 평등, 민주적인 참여, 공공재, 민족 또는 다수 민족(dominant race), 가족 및 친목(sociability), 인류애, 존중, 업적 및 이해. 이것은 중대한 폭발이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헌은 분명히 금욕주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지지자들의 개념 적용에 대한 열정적인 옹호와 더불어 사회적 배제라는 광범위한 주제 아래 무차별적인 문제의 나열, 선택에 대한 훈련 부족은 전문가들을 빈곤과 결핍이라는 주제로 내모는 효과를 낳았다. Else Oyen의 사회적 배제의 연구 기관에 대한 솔직하게 묘사한 것을 살펴보면 이 영역에 새로 들어온 연구자들은 “개념을 선택한 다음 이론적으로 충분한 토대가 없는 개념에 안에서 연구 가능한 내용을 찾기 위해 모든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다닌다”라고 되어 있다. 만약 옹호론자들과 비판론자 두 부류다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것은 부드러운 항해는 아니다.

이 논문에서 나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생각의 성격, 관련성, 도달 범위를 면밀히 조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나는 이 개념을 이전에 설명 된 개념 및 사회적 배제가 합리적으로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에 연결하려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첨가한 부분과 이 첨가된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또한 나는 이 아이디어를 프랑스의 맥락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 유럽의 맥락- 처음부터 옹호하기 시작한-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아이디어에 대한 유용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사회적 배제의 접근이 어떤 통찰력을 제공했는지-만약에 그랬다면-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빈곤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이것이 간과될 수 있었던 빈곤의 원인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이것이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 행동을 풍부하게 했는가? 우리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헌을 무시한다면 빈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다를까? 선택된 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비판적인 이슈들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평가하고(evaluation) 평가하는데(assessment) 핵심이다.

## 2. 빈곤, 역량 결핍, 그리고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은 빈곤과 빈곤에 대한 결핍에 관한 문헌에서 잘 정립된 개념과 관련이 있고, 용어의 구체적인 역사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선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용하다. 사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새로운 문헌의 기여는 역량 결핍과 같은 더 광범위한 맥락-오래된-안에서 더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접근과의 연관성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밝혀내는 것에 있어 구체적인 강조점과 중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과 아이디어의 영역에서 시작해보자. 첫 번째,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흔한 결핍과 극빈에 대해 정립되어 있는 문헌을 살펴보면, 빈곤을 단순히 소득의 부족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의 관계적인 개념에서 다소 먼 이 견해는 소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영향이(적절히 정의 내렸음)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은 빈곤은 종종 소득의 불충분으로 인해 나타나고, 이런 의미에서 소득은 빈곤한 삶의 중요한 원이 된다. 하지만-마지막 주장이 제안하듯이- 근본적으로 빈곤은 가난한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지, 그저 소득의 적음(다른 요소는 없음)으로 봐서는 안 된다. 소득은 결핍이 없다면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삶-우리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자유에 대해 하나 혹은 두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은 실수일 수 있다. 우리는 궁핍한 삶을 바라보아야지, 가벼운 지갑만 살펴서는 안 된다.

빈곤을 가난한 삶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아이디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인간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첫 번째로 사람의 기능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삶의 활동”에서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한 삶은 인간이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삶이다. 삶의 빈곤은 William Petty, Gregory King, Francois Quesnay, Antoine Lavoisier, Joseph, Louis Lagrange 등과 같은 선구적인 연구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초기 경험적 연구에서도 체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Adam Smith 또한 “필수품들(necessaries)”에 대해 빈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예를 들어, 공공장소에 부끄러움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내렸다. 그러므로 빈곤을 역량 결핍(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빈곤)으로 보는 관점은 광범위한 분석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는 현대 문헌에서도 많이 다뤄져 있다.

빈곤에 대한 역량 결핍 관점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특유의 역량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차원적이다. 나는 이 광범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접근을 사용하여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안한다. 그 연관성을 즉각 보인다.

첫 번째, 우리는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배제는 능력의 빈곤의 직접적인 일부분이다. 실제로, Adam Smith의 “공공장소에 부끄러움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있는 것”이라는 결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회적 배제의 형태를 띠는 역량 결핍의 좋은 예이다. 이것은 공동체에 참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인은 불가피하게 ”사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해와 연관이 있다. Smith의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며 결핍(영양 결핍이나 노숙자처럼), 사회적 배제의 유형들은 빈곤이라는 개념의 구성요소로 여겨져야 하며, 이는 핵심 요소 중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암시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는 것은 다른 결핍으로 이끌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의 기회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되거나 신용을 제한 받는 것은 경제적인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영양 부족이나 노숙 같은 다른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배제는 역량 결핍의 요소이자 다양한 역량 상실(capability failures)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를 빈곤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역량 상실과 같은 일반적인 빈곤의 관점에서 확립하기 쉽다.

이러한 연관성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배제가 빈곤과 결핍의 문헌에 늦게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실제로, 이것의 시작은-1970년대의 저작에 기인한- Adam Smith가 “공공장소에 부끄러움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의 형태로 결핍에 대한 설명을 한지 200년 후였고, 더 일반적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경험한 어려움이다.

사회적 배제에 관한 문헌이 역량 상실(capability failure)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수백 년 동안 논의 되어 온 이슈들 보다 더 명확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이 보인다. 우리는 경고를 무시한 새로운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옹호될 수 있고, Else Oyen의 저주 문구를 사용한다면, “제한된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우산 개념(umbrella concept) 안에서 조사 가능한 콘텐츠를 찾기 위해 세미나와 회의를 주최하는 곳을 모두 뛰어 다니는 것” 오히려 우리는 가치 있는 어떤 것을 하는 자유의 부재를 빈곤으로 보는 광범위한 접근을 더 풍성하게 할 관계적인 특징에 중점을 두는 것-광범위하게 논의 되고 면밀히 조사된 이론적 접근-에 대한 장점을 고려하고 있다. 역사적인 연관성을 정립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배제를 이전의 아이디어들과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적 기초와 분석적 규율을 강화한다.

실제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 접근의 장점은 이것이 즉각적으로 거대하고 다소 비합리적인 문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잘 정립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헌을 이 구조화된 접근 방식에 놓음으로써, 우리는 역량 프레임워크에서 적절히 포착될 수 없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가치 있는 어느 것도 잃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3. 역량 결핍의 관계적 특징

위에서 제시한 분석이 맞다면, 사회적 배제에 대한 진정한 중요성은 역량 결핍과 그에 따르는 빈곤의 경험에서의 관계적인 특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관계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참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Adam Smith가 18세기에 했고 그 전후 다른 이들이 그랬듯이)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헌이 관계적인 연결에 중심 역할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있다.

Adam Smith는 인간의 삶을 절대적인 방식으로 궁핍하게 만드는 관계적인 결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 프레임워크에 잘 맞는다. 실제로, 국부론의 많은 부분은 배제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고, 특유한 유형의 배제의 영향엔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법안을 통한)사람들의 시장에서의 배제, 혹은 (사적인 수단과 공적인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교육 기회 박탈.

하지만, Smith는 또한 구성적으로 연관 있는 관계적인 결핍에 대해 분명하게 논의했다. 그는 인간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이라는 결핍에 대한 더 큰 개념 안에서 사회적 배제의 특징에 대해 조사했다.

위에서 간단히 논의 한 것처럼, Smith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품의 특징을 정의할 때 포용과 배제라는 아이디어를 빈곤 분석의 중심에 놓았다

여기서 Smith는 결핍을 대중에 나타나거나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동체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로써 관심을 가졌다.

: 필수품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관습이 무엇이건 간에 일반사람들, 심지어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가죽 신발이 필수품이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가죽신발이 없으면 대중에게 나설 때 부끄러운 일이었다.

여기서 Smith는 결핍을 대중에 나타나거나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동체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로써 관심을 가졌다.

이런 역량들의 관계적인 특징은 두 가지의 개념을 연결한다—역량 상실과 사회적 배제. 새로운 문헌들의 중요성 달성된 초점에 있으며, 사회적 배제를 빈곤과 별개로 보거나(역량 결핍의 더욱 일반적인 접근의 부분으로 보기 보다는) 관계적인 기능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있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를 인과관계의 특별히 중점을 두는 역량 결핍의 일반적인 접근의 부분으로 보는 것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의심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헌이 역량 분석의 좁은 한계를 뛰어 넘는다는 믿음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 될 가치가 있다. Charles Gore에 의해 제기 된 중요한 이슈를 사회적 배제 접근의 특별한 장점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관계적인 개념으로 보이는 이것은 Amartya Sen이 시작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복지구가주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공했으나, 역량의 개념을 가장한 채 여전히 지나치게 개인주의에 결부되어 있고 사회적 관점은 불충분하다.

Gore은 관계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회적 배제 접근 방식의 큰 장점으로 보았고 이는 옳다. 하지만, 역량 관점이 이런 관계적인 연결성을 놓치고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며 사회적으로 불충분하게 만드

는 것인가? 개인에게 관계적인 결핍이 일어나는 것이지만(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헌에 나오듯이), 역량 분석의 초점-Smith 시대의 방식으로-개인 결핍의 사회적 원인에 민감했다. 예를 들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혹은 대중에게 창피해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능력)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소들은 불가피하게 사회적이며, 그렇게 보여 왔다. 보다 합법적인 출발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연관성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의 유용성은 이것의 새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제의 관계적인 기능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있다. 오랫동안 배제와 관련된 이슈들은 개발 문헌의 부분이었다. 다뤄진 이슈들은 구성적인 중요성의 결핍뿐만 아니라(역량 상실의 프레임워크안에 있든지 아니든지) 도구적으로 중요한 결핍이었다. 전통적인 발달 분석은 이런 개념들은 “exit, voice, and loyalty(출구, 발언권, 그리고 충성도)”, 도시 편향( Michael Lipton에 의해 탐구된), 토지 및 신용 불가용성, 특정 유형의 경제적 활동에서의 여성 배제, 인구 상당수가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슈들은 사회적 배제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집중된 토론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에 대한 새로운 문헌의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이탈을 조사하는 것보다 장점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새로운 문헌의 창의적인 기여를 평가하는 것에서 개념적인 참신함이 진정한 이슈가 아니라, 타당성에 있다. 적절한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 배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고, 새로운 문헌은 빈곤과 결핍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무시되었던 것들과 많은 중요한 연관성을 끌어냈다.

#### 4. 배제의 언어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이 다양성과 도달 범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용어를 너무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배제는 다양하고 적용 가능성이 높아서 모든 배제를 사회적 배제로 치부해 버리기 쉽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문헌은 이 용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지적인 명확성을 위해 언어적인 유사성을 넘어 개념적인 차별을 행사하는 강한 예시가 있다. 물론 배제적인 관점이 일부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관계적인 기능에 대한 참조하지 않고 이미 잘 이해되어 있는 부분에 무엇인가를 추가할 때 언급될 수 있다. 조사 유용성은 부분적으로는 판단의 문제이지만, 사회적 배제의 강력한 수사학을 언급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인 정밀 조사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통해 구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굶주림의 형태의 결핍에 대해 생각해 보자. 비자발적인 굶주림은 음식에 대한 접근에서의 배제된다고 보기 쉽다. 이 문장은 말은 되지만, 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는다. 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는 배제의 관계적인 기능에 대해 주의를 끈다는 것이고, 관계적인 배제가 굶는 것의 특별한 경우의 책임이 있는지 질문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굶주림의 경우에도 관계적인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 첫째, 음식은 사회적 교제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음식의 교환과 같은 구성적인 관계적 역할로 인한 음식의 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 둘째, 가족 안에 음식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인과관계적인 영향이 관계적인 기능과 중요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관료주의적인 장치나 사장 권력을 통해 대부분의 음식을 장악할 때 굶주리는 집단이 있는 경우엔 배제는 결핍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음식 전쟁은 공급이 융통성이 없을 때 기근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 이런 종류의 사례는 기근과 영아 부족 연구의 맥락에서 주목을 받았다.

구성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관계형 박탈의 경우, 배제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과정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다른 결핍을 야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인식된 결핍의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관계의 유형화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굶주림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상실(entitlement failure)과 관련이 있다. 다음을 통해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1) 흉작으로 인한 굶주림은 농민 가정이 전통적인 식량 공급을 잃게 만든다.
- (2) 실업으로 구매력을 상실한 결과로써의 굶주림
- (3) 경제력의 비대칭적인 증가와 다른 이들의 식량 수요 증가로 인한 상대적인 가격 변화의 결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인한 굶주림.
- (4) 식량보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조금 제거로 인한 굶주림.

위의 모든 상황이 배제로 설명될 수 있다. (1)정상적인 농작물을 즐기지 못함 (2) 고용에서 배제 (3) 낮은 구매력으로 인한 식량 시장에서의 배제 (4) 식량 보조금에서의 배제. 하지만, 이들은 다른 인과 관계 유형을 포함하고, 그 중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배제의 의미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량 보조금의 철회는 질문의 핵심에서의 적극적인 배제의 형태를 포함한다. 반면에, 농민에게 고통을 주는 흉작은 배제로 보기 힘들다.

실업으로 인한 굶주림은 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맥락에서는 개인이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것은 배제라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분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자리가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위해 따로 확보되어 있거나 할당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경우이다. 이것은 일자리를 대다수의 그룹이나 남성을 위해 확보한 사회에서의 소수 그룹이나 여성의 높은 실업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업의 원인은 항상 또는 전형적으로 배제의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실업으로 인한 굶주림이 사회적 배제의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는지의 관련된 인과 관계의 과정의 특성에 달려 있다.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배제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는 그 인과 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무엇이 실질임금을 하락시켰는가? 이런 실질임금의 하락은 기근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한 예를 들자면, 1943년 뱅갈 기근의 중대한 역할을 했던



실질 임금의 하락은 땀의 전쟁 지출을 기반으로 한 비대칭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다. 이는 도시 주민들의 소득은 올리고 농촌 노동자들은 배제시켰다. 농촌 노동자들의 권리 상실에 대한 분석은 배제를 근거로 한 추론에 부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영국령 인도 제국의 어부들의 정상적인 배를 침몰시켜 고통을 받은 어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지나치게 팽창한 일본 군대를 방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확실히 많은 어부들과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제시켰다.

배제적인 관점의 실제 관련성은 결핍으로 이끄는 과정에 달려있다. 이 경우는 구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이런 종류의 차별은 첫째로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이것의 건설적인 역할, 두 번째로는 사회적 배제의 용어와 수사학의 단순 사용을 분리하기 위해 중요하다. 둘 다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개념적인 창의성과 언어의 확장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 5. 사회적 관계: 헌법과 수단적인 중요성

이번 섹션과 다음 섹션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일반적인 범주 내에서의 두 가지 특유한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앞서 이 논문에서 이미 여러 종류의 사회적 관계의 수단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중요성을 설명하고 예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배제가 역량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배제되는 것은 결핍일 수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핍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로 상실이다. 이것은 사회적 배제의 구성적인 관련성이다.

반대로 그 자체가 끔찍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관계적인 결핍이 있다. 예를 들어, 신용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모두에게 불쾌하게 보일 필요는 없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빌리고 갚는 것을 즐길 수 있고, 다른 이들은 이것을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 어떤 이들은 폴로니우스(Polonius)의 충고를 따는 것에 행복하다: “빌려주는 자도 빌리는 자도 되지 말라”. 그러나 신용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지 못한 것은 다른 종류의 결핍을 가져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 빈곤이나 초기 투자와 신용 사용을 요구하는 보람되고 흥미로운 기회를 잡지 못할 수 있다. 인과적으로 중요한 이런 종류의 배제는 수단적인 중요도를 가질 수 있다: 그 자체로 궁핍해 지는 것은 아니나, 이런 종류의 배제는 참여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기회를 가는 것에서 배제되는 등 인과적 결과로 인한 삶의 궁핍을 가져올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부재도 비슷한 도구적 결핍이다.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은 농경사회에서 아마도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물론 농촌 사회의 오래된 가치 체계를 고려할 때, 땅이 없는 것은 마치 자신의 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이 자신의 토지와 관계에서 직접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지와 상관없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및 사회적 결핍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

다. 실제로, 토지의 이전은 개발 문헌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분명히 특정 관계적인 결핍은 구성적 및 도구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것은 직접적으로 한 개인의 삶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부가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경제적인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역량 결핍과 사회적 배제의 요소들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관련성이 있을 때 구성적으로 중요한 결핍과 도구적으로 중요한 장애의 일반적인 범부 내에서 각각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핍이 구조적인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 배제를 통한 인과 과정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면, 이런 많은 경우 사회적 배제의 관점을 도구적 근거로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인과적 과정의 특징은 각각의 관점의 연관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 6. 적극적인 배제와 소극적인 배제

구조적인 관련성과 도구적인 중요성간의 구별은 사회적 배제의 특징과 범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차이 중 하나다. 다른 종류의 잠재적으로 유용한 구별은 적극적인 배제와 소극적인 배제이다. 예를 들어 이미자나 빈민들이 정치적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이것은 적극적인 배제고, 이는 유럽과 아시아 및 다른 지역에서 소수 민족 공동체가 겪는 결핍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배제할 의도가 없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행해진 배제는 소극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좋은 예는 부진한 경제로 인한 빈곤과 소외와 이론적인 빈곤의 증대이다. 적극적인 배제 및 소극적인 배제는 둘 다 중요하지만 같은 의미로 중요하진 않다.

이 구별은 인과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대응과도 관련이 있다. 관계적인 배제는 일부 사람들을 일부 기회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적인 정책에 의해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연방정부의 특정한 혜택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를 배제시키기로 한 미국 의회의 결정은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책을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명확하게 적극적인 배제다. 반대로, 상당한 수준의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시적인 경제상황은 그 결과를 겨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특정한 그룹이 고용의 과정에서 특별히 제외된다면, 그런 결과를 낳는 경제적 상황이나 그러한 상황을 야기하는 경제적 정책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취약한 사람들을 배제할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 직접적인 목표가 없다는 것을 물론 정부가 그 책임에서 벗어난 것을 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경제적으로 어떤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다른 고의적인 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배제와 그러한 의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일련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배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적극적인 배제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겨냥된 배제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사건의 가치보다 덜 주목 받은 유럽의 정치적 배제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볼 수 있다. 최근 우익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독일과 프랑스의 이민자 정착은 많은 정치적 관심을 받았다. 수십 년 전에 대규모 이민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강력한 반 이민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국이 이 문제를 피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독일과 프랑스의 우익 극단주의와 같이 되지 않고 이민

자들의 퇴치를 초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일부 나의 영국 친구들은 단순히 이것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인과 관계의 가설의 설명력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나는 이에 대한 설명은 부분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 정착된 대두분의 이민자들이 겪는 투표권의 배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은 시민권 취득의 어려움과 지연으로 인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이들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치의 과정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적극적인 배제다.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독일의 상황을 더 안 좋다; 독일에서는 장기 거주한 이민자들도 시민권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정치적 배제는 심지어 장기 거주한 이민자들의 시민권 박탈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은 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1998년 이 보고서가 처음 발표된 후 독일에서 새롭게 선출된 정부는 정착된 이민자들이 투표권을 얻는 과정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만약에 여기서 제시된 논쟁이 사실이고 이런 변화(만약 수행된다면)는 이민자들이 나머지 사회와 통합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반 이민자에 의한 이민자 인구의 표적 퇴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연방에 의해 관할된 제국 전통 때문에 영국에서의 투표권은 시민권이 아닌 연방의 시민권에 의해 결정된다. 사실, 영연방의 어떤 시민들- 영연방 여왕의 관할 아래 있는 시민-은 즉시 거주를 인정받고 투표권을 얻는다. 영국에 이민 온 대부분의 비백인 이주자들은 서인도 제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와 같은 영연방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국에 이민 오는 순간 정치적 참정권을 얻는다. 이러한 정치적 배제의 부재는 정착한 이민자들이 그들의 투표권을 인정받고 영국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독일의 우익 극단주의자들은 강한 반이민정책을 주장하고, 이민자들의 표도 잃지 않고, 반이민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도 잃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반대로 이런 주장은 즉시 영국 시민이 아닌 이민자들의 반대도 불러일으킨다. 이런 점이 영국의 정당들이 이민자 투표에 관심을 가지고 초기 인종주의적 정치 시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나는 이것이 영국이 전후 초기에 국가를 위협한 극단적인 인종주의자들의 시도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민자 공동체의 정치적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영국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 통합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이민자 이슈에 대한 착취는 정착한 이민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반이민 정치적 세력에 의존한다.

비록 이민자의 투표권의 부재를 통한 사회적 배제가 반이민 극단주의에 관련한 사회적 배제의 수단으로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정치적 배제가 이런 나라들에서 사회적 배제를 지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를 포함하여 정치적인 통합과 투표권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및 소극적인 배제는 유럽의 사례에서 제시된 관련성 보다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7. 장기 실업과 배제: 예시

사회적 배제의 도달 범위를 연구할 때, 배제된 인구와 관련될 수 있는 경제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역할을 연구하는 것이 유용하다. 가장 적절할 수 있는 예는 장기 실업의 중요한 현상이다. 실제로 현대 유럽에서

는 중대한 차원에서 실업과 실직의 팽배가 사회적 배제의 지속에 가장 중대하게 기여하고 있다. 유럽의 실업률이 두 자리 수(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10~12%이고 스페인은 그보다 높다)를 상회함에 따라 유럽인들의 자립적인 경제적인 기초는 많이 훼손되었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경제적으로 발전한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될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유럽의 1~3%의 현저히 낮았던 유럽의 실업률과도 비교가 된다.

이상하게도 높은 실업률을 유럽에서 받아들일 만한 사안처럼 다뤄진다- 미미한 시위는 사임으로 이어짐. 또한 높고 장기적인 실업률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평가가 부적절하고 높은 실업률로 인한 고통과 분열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도 불충분하다. 우리는 유럽의 팽배한 실업이 삶과 자유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주목해야 한다.

때때로 유럽에서는 실업 보험과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 때문에 더 이상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주장은 몇 가지 뚜렷한 이유로 인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 첫째, 사회 보장과 실업 보험은 나라의 공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경제 운영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실업의 악영향은 실업자의 낮은 소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낮은 소득(더 정확히 말해서 잃어버린 소득의 일부)을 보상하는 것은 장기 실업의 결과로 빚어진 다른 손실도 초래한다. 이러한 손실의 일부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보다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

소득의 문제를 제외한 실업과 관련된 다른 영향에 대한 리스트를 살펴보자. 이런 효과들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분석 될 수 있다.

현재의 생산량(Output)의 손실: 실업은 국가의 잠재적인 생산성의 일부가 손실되기 때문에 생산력의 낭비를 수반한다. 이런 수치는 실업률이 매우 높을 때 상당히 클 수 있다.

기술의 손실과 장기적인 피해: 사람들은 실행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배우는 것도 있는데 이는 고용이 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수행의 저하뿐만 아니라 실업은 실업자의 자신감과 자기 통제감의 손실로 인한 인지적인 능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기술의 능숙도 낮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좋은 기술을 단순히 암기하는-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배제로 이끄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 상실과 사회적 배제: 빈곤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에서 보면, 실업자의 결핍은 일자리의 부재로 인한 자유의 상실을 포함한다. 실직상태에 처한 개인은 비록 사회 보험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정의 자유는 누리지 못한다.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많은 자유의 상실은 많은 실직자들의 주요 결핍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실업은 사람들을 사회적 배제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배제는 직업과 관련된 보험, 연금, 의료 수당과 같은 경제적인 기회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도 적용된다.

심리적 위험 및 불행: 실업은 실업자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한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업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밝혀냈다. 실제로, 높은 실업률은 자살률의 상승과 관련이 있고, 이는 그 피해자가 경험하는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인식에 대한 지표이다. 지속되는 실업의

영향은 특히 개인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청년 실업을 특히 많은 피해를 줄 있으며, 이는 젊은 노동자와 학교 졸업생과 같은 취업 입문자 장기적인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진다. 이런 피해에 대한 영향은 특히 젊은 여성에게 심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이런 비슷한 문제가 유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함). 청년 실업은 유럽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현재 유럽에서의 실업의 상당 부분은 청년에게 쏠려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다.

질병 및 사망: 실업은 임상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질병과 높은 사망률(자살을 통해서가 아닌)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의 상당 부분은 소득 및 물질적인 수단의 상실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실업으로 인한 상실감, 자존감의 부재, 그리고 동기 결여와 관련된다. 하지만 이것은 이 자체만으로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아니지만, 건강악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인간관계의 상실: 실업은 사회적 관계와 가족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는 또한 가족 안에서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감의 감소와 연관될 수 있고(경제적인 수단의 감소 외에도), 조직적인 직장 생활의 부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관계적인 기능이고 사회적 배제의 직접적인 영역 안에 있다.

동기의 부재와 미래의 일: 실업으로 인한 상실감은 동기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실지된 사람을 낙담시키고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 동기의 부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의 잠재성이 있고, 이는 사회적 배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업의 사회 심리적 효과는 미래에 실업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장기적인 실업의 영향은 (1)노동할 수 있지만 실직자와 (2)노동력의 밖이라는 구별을 약화시킬 때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 구별에 대한 실증적인 타당성은 관련된 인물이 처한 상황 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에도 중요할 수 있다.

성 평등과 인종 차별: 실업은 성 분열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갈등도 악화시킬 수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이민자 집단에 속한 소수민족이다. 이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의 일반적인 삶에 쉽게 통합될 수 없도록 만든다. 게다가 소수민족은 종종 취업 경쟁을 하는 사람들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은 인종차별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는 유럽의 최근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배제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여성 노동력의 유입은 실업에 의해 특히 저해되기 때문에 성 분열은 심각한 실업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또한, 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청년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특히 젊은 여성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밝혀졌다. 젊은 여성들의 실업 후 노동시장의 재진입은 초기 실직 경험으로 인해 더욱 저해된다.

사회적 가치의 약화: 대규모 실업이 사회적 가치를 약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도 있다. 장기적인 실업에 빠진 사람들은 사회적 합의 공정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존에 대해 냉소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효과는 책임감과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실업과 범죄의 관찰된 연관성도 실직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이는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배제에 대한 감정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영향과의 관련성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결속력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과 비참하고 불만이 있는 실직에 처한 소수의 사람들과의 확고하게 나뉜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직면한다. 고립감은 심리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유로 인한 사회적 배제는 현실적이다.

이러한 리스트 외에도 고려될 수 있는 다른 효과들도 있다. 그러나 이 리스트에서 파악된 문제들에서 분명히 할 것은 지속적인 실업은 많은 방식으로 결핍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 중 일부는 실업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과정 안에서 연구될 수 있다. 이런 실업과 관련된 관계적인 배제는 사회적 고립과 실업의 연관성을 통한 구성적인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결핍으로 이끄는 실업의 영향으로 인해 이는 도구적으로 중요하다.

장기적인 실업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역량의 결핍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나는 유럽의 광대한 실업을 강조하였지만, 비슷한 문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중요하다-하지만 이런 나라들에서의 낮은 소득의 형태로 나타나는 압도적인 경제적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경제적 분석하는 것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다. 비록 사회적 배제에 관한 유럽의 문헌이 유럽의 배경에서 수행되었지만, 이는 다양한 유형의 배제와 관련된 구성적인 결핍에 큰 관심을 갖는 다른 지역의 빈곤 분석의 가능성에 제안적인 기여를 했다. 이 문헌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빈곤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8. 유럽의 기원, 보편성의 중요도 및 아시아에서의 사용

마지막 단락에서의 간단히 설명한 다른 지역에서의 문제의 가능성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하기 위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새로운 문헌을 검토할 때 중요하다. 근대적인 형태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유럽 특히 프랑스의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두 가지의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유럽에 기원을 둔 특히 문화적 특이성을 지닌 이 문헌이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배경에 사용하는 것이 장애가 되는가? 둘째, 유럽 특히 프랑스에 기원을 둔 연구가 이 이슈에 대한 상관을 측정할 때 추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개념적 계보를 제공하는가? 또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헌이 유럽 국가들의 문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나는 두 번째 질문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다. 프랑스에 기원을 둔 것은 완전히 우연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프랑스는 프랑스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을 변화시킨 독특한 역사적 사건과 사상을 가진 유럽 문명 중 하나이다. 사회적 배제의 요구와 도달 범위를 이해하는 데 이런 특유의 역사적 사상과 사건이 중요한가?

여기서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프랑스 혁명에서의 자유, 평등, 박애는 현대의 지식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요구들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으며,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심도 있게 연구되어 왔다.

나는 평등에 대한 관심이 빈곤을 피하려는 의지로 끌고 가듯이 박애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을 공동체의 생활의 배제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박애의 남성적인 용어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개념을 일반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등은 다른 사람들의 기회에 대한 비교와 관련이 있으며, 그 맥락에서 기회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역량의 결핍이라는 빈곤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박애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누리는 기회들 사이의 관계에 중점이 있고, 우리가 그런 중점에 주의하면 사회적 배제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개념을 보는 이 방법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아이디어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안한다.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관계적인 실패는 구성적으로 중요한 결핍으로 간주되고, 이는 다른 종류의 결핍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의 실용적인 문헌에서의 사용은 유럽, 프랑스의 지식적인 역사에 나와 있는 심층적인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전통의 풍부함은 사회적 배제의 접근의 중요성을 더하지만, 이런 규범이 다른 나라의 인간 가치와 관련이 없는 방식인 유럽, 특히 프랑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다. 우리는 계몽주의 문헌에서 현대사회의 일부가 되는 건강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받은 많은 가치를 지닌 세상에서 살고 있다. 프랑스 및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사상의 출발과 관련된 지식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기념하며, 또한 이러한 가치가 보편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다. 비록 현대 세계에서 결정적이었던 특정 표현들은 주로 18세기의 계몽주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계몽주의 문헌에서 발견된 많은 지적인 전례는 아시아를 포함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서 발견된다(아담스미스와 데이비드 흄과 같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다른 지도자를 포함).

지식적인 역사의 문제는 유럽에 기반을 둔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이 다른 지역,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빈곤과 결핍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즉각적인 지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생각과 관심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유럽에서 발전된 유용한 사회적 개념이 유럽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시아에서 관련성이 없다면 놀라울 것이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유럽 문헌의 주요 업적은 역량의 결핍으로 이끈 과정 분석에 대한 것이다. Arjan de Haan은 사회적 결핍에 대한 문헌은 결핍의 다차원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 지적은 옳다. 만약에 구성적인 역할이 빈곤을 다차원적인 것으로 보는 불가피한 필요성을 지적한다면, 인과적 관점은 특정한 유형의 역량적인 결핍의 출현 및 발전과 관련된 과정과 변화의 중요성으로 주의를 이끈다. 사회 분석과 이해는 두 유형의 기여에 의해 풍부해지고, 빈곤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배제 개념의 사용으로 인해 내적 및 외적으로 보충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지적인 관심사에 대해 우리는 결핍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들이 대륙에 걸쳐 널리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증적인 사실을 덧붙여야 한다. 실업은 유럽 및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 발생한다. 유럽은 빈민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런 문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적지 않다. 이민자의 지위, 고립, 그리고 사회적 권한 부여에 대한 질문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배제 특히 아시아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 왔다. 실제로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런 배제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다룬 상당히 많은 문헌이 있다. 그것의 초점은 개인이나 집단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맞춰져 있다. 유럽의 문헌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도 빨리 진행되었다.

아시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수행된 분석과 조사로부터 배울 점에서 무시해야 한다. 실제로 사회 이해는 불가피하게 인식과 지혜의 교환을 포함한다. 유럽이 아시아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도 쉽게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 교육의 사회적 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아시아의 일부 사회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은 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일본과 동아시아의 인간 개발에 기반을 둔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의 과정을 배울 수 있다. 반면에, 경제성장 흔들리고 삶이 궁핍해질 때 사회 안전망의 부재는 유럽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이는 유럽의 복지 국가의 특징으로 인해 제공되는 보호 때문이다.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 조사의 통합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질적인 문제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 9.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실용적인 근거

사회적 배제에 관한 문헌은 인식론적인 문제와 실용적인 근거 두 가지의 주요 이슈를 다룬다. 인식론적인 질문은 특히 관계적인 장애와 결핍과 빈곤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용적인 근거는 그런 이해를 넘어 정책적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 입안을 어떻게 개선할 지를 묻는다.

두 가지의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자 노력했지만, 이 논문은 실용적인 근거 보다는 인식론에 좀 더 치우쳐 있다. 정책 결정을 위한 교환은 인식론적인 조사에 의해 나온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진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실용적이며 행동 지향적인 조직의 경우, 정책적인 문제나 실용적인 근거를 위한 연구에 어느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이미 다뤄진 정책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배경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책적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설명해야 할 두 가지의 이슈가 있다.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변하고 종종 빠르게 변한다. 예를 들어, 세계화의 힘은 새로운 집단을 경제, 사회의 집단으로 이끌고 다른 이들과의 문화적 접촉을 하게 만든다. 세계화는 위협이나 엄청난 기회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은 세계화가 제공하는 효과적인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 만약 사람들이 국제적인 제한이나 국가적 혹은 지역적인 준비의 부족으로 인해 이런 기회에서 배제된다면 세계화의 결과는 이전의 경제적인 생존 체계에서 새로운 소득 및 생활 방식에 포함되지 못하는 배제일 것이다. 세계적인 변화의 맥락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헌을 기반으로 한 이해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배제가 역량적인 결핍과 빈곤으로 이끌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포용이라고 여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결핍으로 인한 많은 문제는 배제의 경우로써 마땅하다고 볼 수 있는 것보다는 포용과 불리한 참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착취적인 고용 조건이나 사회 참여의 심각한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배제에 대해 중점을 두기 보다는 포용의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야기 한다. Anita Kelles-Viitanen은 이런 기본적인 이슈에 대해 다뤘다.

배제의 적용성을 기반으로 본다면 사회적 배제에 대한 수사학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확장된 배제는 평등한 포용으로부터의 배제 심지어 수용 가능한 포용의 함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할 수 있다. 언어의 가소성(plasticity)은 이런 수사학적인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의 일반적인 범주아래 묶으려고 하지 않는 시도(이번 경우엔 사회적 배제)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이 길을 택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는 것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 다기 보다는 전통적으로 인식된 문제를 재조명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언어의 가소성이 계몽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몽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이러한 재구성에 큰 개념적인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종류의 문제에 불변의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문제의 본질과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강제적으로 포함되는 문제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문제들은 같은 언어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문제가 아니다.

더욱 긍정적으로, 우리는 불리한 배제와 불리한 포용으로부터 비롯된 결핍 모두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만약 사회적 배제를 보다 광범위한 역량적 결핍의 개념 안에서 살펴본다면 적절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다양한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인간이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 이다. 개인의 결핍은 불리한 포용이든 금지된 배제든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후진적인 농촌 경제에 있는 노동자는 특별히 불평등한 포용으로 인해 고통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은 그런 노역에서 벗어나도 대안적인 고용 기회의 부족과 일반적인 실업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직면들일 수 있다. 실업은 사회적 배제에서 중요한 원인이고, 사람을 착취적인 고용안에서 불평등한 포용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개인이 처해 있는 곤경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역의 불리한 포용, 원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배제에 따르는 고통,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의 결과로 착취적인 노동에 포함되는 것. 세계는 변화만큼이나 다양하다, 하지만 개인을 결핍으로 이끄는 다양한 영향과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추적하는데 기본적인 어려움이 없다. 더 심도 있는 이해가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

## 10. 정책적 이슈: 사회적 기회의 공유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일반적인 문헌과 관련된 특별히 아시아와 관련이 있는 정책적인 이슈를 파악할 때, 고유한 유형의 배제와 인간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가능성과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련성의 적절한 파악은 내가 이 논문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가능한 가설 몇 가지와 살펴볼 가치가 있는 일반적인 조사를 언급할 것이다.

아시아의 두 국가의 사회적 경제의 문제는 두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경험은 상이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이분법적인 주장이 있다. 한편으로 거대한 산업화와 현저한 일인당 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큰 경제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있다. 일본은 낮은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부유한 경제 수준으로 놀라운 진보를 이룬 예이다. 하지만, 다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도 산업화와 소득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특히 동남아시아에는 이런 측면의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분류는 매우 좋은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는 어느 한 쪽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대조는 인식론적인 가치와 정책 분석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주로 서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경제는 많은 사회적 배제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그 결과로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과의 사회적 문제와는 다소 다르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의 성공은 기초 교육과 기본적인 사회적 기회 등 특정 유형의 사회적 배제를 피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는 그들만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문제를 직면한다. 그리고 아시아의 재정 및 경제적 위기는 이전에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 취약성을 가져왔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문제들을 살펴봐야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일으키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적절히 인도되지 못한 사회적 기회의 기본적인 공유라는 측면에서의 일반적인 구분이 있다.

실제로, 나는 1997년 7월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한 강의(제목: 위기를 넘어서: 아시아의 개발 전략)에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에서 파악할 수 있는 철학이 있고, 우리는 첫 번째로 일본에서 발전한 동아시아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산업화와 경제적 발전의 세계로의 돌파는 굉장히 확실하고 거대해서 일반적인 경제발전의 특성에 대한 이해로 사용할 수 없다. 동아시아 전략은 지난 수십 년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눈부신 성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서구의 많은 학자들은 이런 성공에 대해 이전부터 갖고 있던 국제 무역의 생산에 믿음을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더 광범위한 분석은 일본,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발전 과정에는 눈에 띄는 새로운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가장 기능은 기초 교육을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움직임으로 삼은 것이다. 둘째, 이들은 교육, 훈련, 토지 개혁, 그리고 신용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제의 기본적인 권한을 보급했고 이는 시장 경제의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회에 대한 배제를 제거했다. 세 번째, 선택된 발전의 설계는 서구의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경제 발전에서 수행하지 못한 주정부의 활동과 시장 경제의 혼합했다. 실제로, 이러한 성공은 우리는 다중기관(multi-institutional)의 환경에 살고 있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자유에 따른 것이라는 기본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기회, 시장 합의, 개인의 역량 개발 그리고 사회적 시설의 개선 등을 포함한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참여적 성장에서 사회적 배제를 근본적으로 반대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기관들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우리의 기회와 전망은 어떤 기관이 존재하고, 그들이 어떻게 기능하며 그들이 얼마나 포용적인지에 달렸다. 기관들이 자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은 자유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 평가된다. 다른 해석자들은 구체적으로 시장, 민주적 시스템, 미디어, 공공 배급 시스템 등 특정한 기관에 중점을 두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조합 등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있다. 통합된 관점에서 다양한 기관들은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하고 그들의 기여도와 포용적인 기능은 평가되어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은 열정과 반대에서 발생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하는 것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을 통한 기본 합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시장 존재 자체가 아닌 다른 자원을 통해 발생하고 그러한 시스템적인 배제를 포함하는 문제는 시장 기능의 과정과 결과의 사용, 시장 거래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불충분한 자원 혹은 부적절한 준비, 비즈니스 리더들에 의한 제한된 정보, 비대칭적인 이익을 점유하는 권력을 가능케 하는 규제방지 않은 광고나 경제 활동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은 시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시장의 전반적인 성취는 사회적인 기회의 창출에 의해 좌우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거의 100년 전 시작된 동아시아 전략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놀랍게도 급속한 성공은 기회가 엘리트에게만 국한 된 사회가 아닌 기회가 널리 공유된 사회의 시장 메커니즘에서 성취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초 교육에 대한 보편화, 기본적인 의료 시설의 보급, 그리고 농촌의 빈곤한 경제에 기초적인 자원을 주는 토지 개혁이 중요하다. 그들은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경제적 참여의 문을 여는 적절한 공공 정책을 요구한다. 시장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경제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중요할 때도. 이런 비시장적인 시설을 신중하고 결단된 공공행동을 요구한다.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자. 19세기 중반 메이지 유신 때에도 일본은 유럽보다 높은 식자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유럽에서 1세기 전 경험했던 현대 경제나 산업화를 이루기 전이었다. 생산적인 인간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은 일본 발전의 초기부터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1906년과 1911년 사이, 일본의 교육은 도시와 마을의 예산의 43%를 차지했다. 1906년 군대 모집 정보에 근거한 증거에 의하면, 문맹자를 군대에 모집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실 1913년까지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아직 발전되지 않았지만, 영국보다 많은 책을 출판하고 미국보다는 거의 2배의 양의 책을 출판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다. 기초교육의 공유와 인간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는 일찍이 부터 일본에서 강조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주목할 점은 일본을 부유하게 만든 이런 일들이 1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중요도, 시기, 자발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양상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볼 수 있다. 남한, 싱가포르, 태국, 대만, 중국, 그리고 홍콩의 도시와 이런 지역의 경제, 특히 중국은 이런 일반적인 접근을 잘 활용했다.

동아시아의 기적은 비배제를 중점으로 한 인간 발달에 초점을 맞춘 동아시아 전략의 범위와 힘에 기초를 두었다. 반대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지속적인 문맹률은 구성적인 중요성과 도구적인 결과를 지닌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인 결핍을 낳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초적인 자유를 가지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은 인구의 대다수를 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배제가 경제 성장에의 참여를 저해하는 데 기여한다. 토지개혁과 소액 대출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사회적 기회의 제한은 비슷한 배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11. 정책적 이슈: 아시아의 위기와 안전 보장

앞선 분석에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 인간 발달의 비재적인 확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모든 경험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일부 문제는 최근의 아시아의 재정 및 경제적 위기로 인해 제기되었다.

우리는 실패 없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던 전성기가 끝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비록 2년 전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취약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저하되어 있다. 그러나 취약성을 견뎌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위기는 가장 부유하게 성장하는 경제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지속을 가정할 실질적인 근거는 없다.

보편화된 안보가 발전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비록 발전은 성장의 장기적인 추세와 강도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런 경향지향적인 관점은 발전 과정의 진정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는 포용과 배제를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위기의 최소화(down-side risks)와 사회보장의 공유의 맥락에서 다른 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급속한 진전이 있을 때 다른 집단들도 함께 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인구의 특정한 계층과 분류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면 다른 집단들은 상이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우리는 상승할 때는 통일되지만, 하락할 때는 나뉜다. 여러 계층과 집단의 이해의 조화에 대한 비현실적인 믿음은 무엇인가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산산이 갈라질 수 있다.

남한, 인도네시아나 태국의 위기를 살펴보자. 수십 년 동안 매 해 5~10% 성장해온 나라가 1년 내에 국민총생산이 5~10% 감소하는 것이 왜 처참한 일인지 묻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 순수한 총 합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는 그렇게 처참한 상황을 아니다. 하지만 그 5~10%의 하락이 인구 안에서 공평하게 나뉘지 않는다면, 일부가 위기에서 살아남은 집단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면, 그 집단은 수입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호적인 보안은 중요한 도구적인 자유이며, 사회 안전망을 위한 비배제적인 사회적 합의 그 자체만으로도 발전의 통합적인 부분의 필수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중요한 문헌에서조차도 종종 사람들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전반적인 발전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고 어떤 집단은 처참한 상황에 처해지고 다른 집단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을 때 보장된 사회적 보호이다.

사실, 장기적인 성장의 맥락에서의 개발 문헌에서 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적인 성공을 설명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개발 문헌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형평성의 성장에 대한 분석과 수사학을 넘어서 봐야하는 필요가 있다. 그런 큰 문헌은 개념적으로 풍부하고 실용적으로 중요하지만, 고질적인 빈곤의 문제와 같은 큰 문제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반면에 갑작스런 빈곤의 문제는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결핍과 고질적인 빈곤과는 꽤 상이한 인과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은 비교적 평등한 소득 분배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평등한 영향력을 보장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남한은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안전망의 지속적인 시스템이나 신속한 보상적인 보호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새롭게 발생한 불평등의 출현과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의 결핍은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매우 독특한 과거의 기록과 공존할 수 있다. 이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다른 분석과 이해를 필요로 하고 이는 광범위한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다른 문제에 적용된다.

## 12. 정책적 이슈: 민주주의 정치 참여

지금까지는 정치참여와 민주적 권리로부터의 배제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민주주의의 이슈가 어떻게 결핍, 보장, 그리고 이 전 섹션에서 살펴본 위기와 관련되어 있나? 물론 정치적 참여의 배제는 그 자체로 결핍이고,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의 거부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든다. 일본의 Keizo Obuchi총리는 “아시아의 내일을 건설하기 위한 지적 대화”의 통찰력 있는 개회인사에서 보장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인간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나 존엄성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 안보라는 표현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지만, 인간의 생존, 일상생활, 존엄성을 위협하고 모든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노력을 강화시키는 것의 키워드라고 이해한다.

사회적인 창조물으로써 인간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 없이 활동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정보에 입각하여 잘 조직된 가치를 형성하는 것은 개방된 소통방식과 논의, 그리고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는 이 과정의 핵심일 수 있다. 게다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발언의 자유와 민주적인 선택권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및 정치 참여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실제로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이건 간에 삶을 궁핍하게 만든다.

그러나 포용의 근본적인 역할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도구적인 역할도 이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로 보장의 문제와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 이것은 정부와 정부 사무실의 개인 및 집단에 작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지도자는 그들이 비판 받을 때와 선거에서 지지를 받기위해 사

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 민주적인 형태의 정부와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을 가진 독립적인 나라에서 심각한 기아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전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원활할 때, 민주주의의 보호적인 역할은 절대 간과될 수 없다. 하지만 무엇이 어떤 이유로든지 혼란해 질 때 이것은 두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통한 정치적인 인센티브 큰 실용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민주적인 체제가 보장하는 정치적인 인센티브는 무시하면서 시장이 제공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의 사용을 제안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인센티브의 대체가 될 수 없으며 적절한 정치적인 인센티브의 체계가 없는 빈틈을 경제적인 유인책의 운용으로 채울 수 없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최근 문제는 다른 많은 문제들 중에 민주적인 자유의 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두 가지의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 보호적인 안보(protective security)와 투명성 보장이다. 먼저, 보호적인 보안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 지역의 재정적인 위기가 일반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 민주주의의 보호적인 힘은 이 지역의 몇몇의 나라에서는 심하게 약화된다. 새로이 몰락한 이들은 그들이 필요했던 것에 듣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와 남한의 취약한 계층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그 틈은 그들의 발언권을 약하게 만들었다. 공유된 민주주의 권리에 대한 보호적인 역할은 그것이 필요할 때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연히 이 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람들은 정치적 발언권에 대한 필요를 강하게 느꼈고, 이 시기에 민주주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실제로, 남한은 이미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변하고 있었다. 포용적인 민주주의 권리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필리핀을 포함)의 대중적인 토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결여와 최근 발생한 재정 및 경제적인 위기의 두 번째 연관성은 투명성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런 경제에서의 경제적 위기는 기업의 투명성 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별히 재정 및 사업적인 합의에 대한 검토에서 대중의 참여가 결여되어 있다. 공유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포럼의 결여는 이런 실패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독점적인 가족이나 집단에 대해 도전하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주어진 기회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정치적인 참여에서의 민주적인 권리나 공유된 기회는 당연히 다른 맥락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성평등 및 사회의 낮은 계층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최근의 운동에서 이런 권리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배제가 서로 연결될 수 있고 한 분야의 포용에 대한 진전이 다른 영역의 진전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연결은 보다 광범위한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지역에서도 공유된 민주주의 및 시민의 권리는 과거에도 종종 방송에서 다뤄졌고, 정치적인 포용과 참여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13. 정책적 이슈: 배제의 다양성

이 논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의 이슈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배제가 결핍과 빈곤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불평등과 관계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한 절대적 역량 결핍의 가능성에 대한 아담스미스의 선구적인 분석은 오늘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아시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종류의 구성적으로 관련된 결핍은 또한 부유한 국가의 소비 수준에 대한 영향 혹은 모방의 결과로 빈곤국가에서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양식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이런 현상은 아담스미스와 더 친숙한 고립된 경제 보다는 오늘날 더 팽배하고 나타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삶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 날 빈곤한 국가에서 경쟁적인 소비 스타일로 인해 더욱 힘들어졌다.

이런 상대적인 관점의 중요성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재정 및 경제적 위기와 같이 초기의 성장 과정의 반대되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사람들이 갑자기 빈곤에 빠졌을 때 더 강조된다.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불평등이 경기 침체와 함께 증가할 때 더 악화된다. 우리가 스미스의 빈곤에 대한 분석에 나온 관계적인 문제를 주목한다면, 빈곤의 증가는 배제의 과정의 구성적인 중요성과 함께 추가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노동 시장에서의 배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의 거부하는 사람들을 속박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속박된 노동의 자유롭지 못함에 대한 싸움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중요한 이유처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진입에 대한 자유는 시장 메커니즘이 경제적인 성장과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발전의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사실상,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찬양과 사장 중요한 현대 사건중의 하나인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한 그의 의견은 노예와 다른 노동시장에서의 강제적인 배제에 반대되는 노동 계약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자유는 사회적 삶의 기본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고, 구성적인 관련성과 도구적인 중요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신용 시장에서의 배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도구적인 조사에 비추어 볼 때 빈곤층의 신용에 대한 접근의 확대는 광범위한 영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전 섹션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성별과 관련된 배제와 불평등: 여성과 남성간의 지속적인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다른 어떤 대륙에서 보다 아시아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것은 성과 관련된 사망률과 세계에서 실종된 여성 중 아시아 출신이 많다는 것에도 적용된다. 여성의 관심을 무시하는 것은 여성의 고용의 기회, 기초 교육, 그리고 토지 소유에서의 배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런 배제는 도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사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도구적인 중요도뿐만 아니라 구성적인 다른 이슈도 있다. 여성의 학교 교육 및 고용의 기회는 사망률의 성별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국제 비교 및 큰 국가내의 지역 비교에서 증명되었다. 이런 결과의 분석과 출산 감소에 대한 결과들의 분석은 이런 영향력은 가족 내의 젊은 여성에게 발언권을 줌으로써 발동하는데 이는 첫째 젊은 여성

이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고, 둘째 학교 교육, 독립적인 소득,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가족 내의 젊은 여성의 결정권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 내의 양성 평등과 여성을 결정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직접적인 중요도를 지니기 때문에 구성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여성의 학교 교육 및 고용 기회의 도구적인 역할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을 학교 교육에서 배제시키는 일반적인 문제가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소녀들의 교육을 무시하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 아시아에서의 팽배한 이런 소극적인 문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공표된 소녀들일 학교에서 배제시킨다는 공공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배제의 문제도 있다.

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중 보건 서비스로부터 많은 인구를 배제시키는 것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논란거리였다. 일부 저자는 빈곤한 지역에서 종종 높은 의료비 때문에 현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제적인 배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식량 시장과 빈곤: 다소 다른 종류의 케이스는 몇몇의 나라에서는 식량이 부족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인구의 많은 부분이 심각한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식량 시장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인 수요로 변환시키는 것에서 배제되었다. 이런 문제는 다양한 경제적인 불이익의 결과이고, 그 중 일부는 다른 것보다 관계적인 배제의 관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어린이 영양 부족은 인도와 남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팽배한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나라들은 자급자족할 식량이 있고 식량시장에서 충족되지 않은 수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자급자족할 만한 식량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도는 자급자족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의 영양 부족 발생률이 더 높다. 실제로, 나이에 따른 일반적인 저체중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아프리카의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비율을 20~40%인데 반해, 인도의 비율을 40~60%이다. 모든 인도 어린이 중 약 절반은 식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영양 부족상태에 처해 있다. 이는 식량 시장으로부터 빈곤으로 인해 배제된다는 도구적인 역할은 인도의 식량 상태의 특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선택한 이런 예시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는 단순히 결핍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구성적인 중요도의 여부와 다양한 도구적인 연관성의 정도 그리고 배제에 포함된 적극적인 배제의 범위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배제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 14. 결론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제에 대해 증가하고 있는 문헌은 빈곤과 결핍의 특정한 요소에 대한 인과관계적인 이해와 실증적인 분석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공동 시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진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인이 즐길 수 있는 인생을 궁핍하게 만드는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즐기는 공유된 기회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면 빈곤에 대한 어떤 개념도 만족스러울 수 없다.



이 논문에서 나는 특별히 결핍과 빈곤의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했다.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는 기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곤의 개념에 달렸다. 만약 빈곤이 오직 소득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면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는 것인 빈곤 분석의 영역을 크게 확대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빈곤을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결핍으로 본다면, 영역의 확대는 없을지라도 연구의 초점에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사회적 배제는 역량 결핍으로써 빈곤의 광범위한 관점 안에 놓였고, 이런 개념적인 연결은 사회적 배제의 접근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이 접근의 실용적인 사용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빈곤 분석의 본질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핍의 다차원성에 대한 강력한 지침과 관계적인 프로세스는 모두 꽤 중요하다. 우리는 사회적 배제에 관련된 문헌에서 오래된 이슈가 전문용어로 다시 등장하는 언어의 단순한 변화와 이런 유형의 실질적인 기여를 구분해야 한다. 수사학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강력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분석은 이전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시각은 광범위하고 포용적이지만, 일관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의 분석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중요한 차이는 만들어야 한다. 첫째, 특히, 구성적인 연관성과 배제의 도구적인 중요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적극적인 배제와 소극적인 배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다른 범주는 다소 명확한 유형의 케이스를 포함하지만 중첩될 수도 있다. 결핍의 관계적인 뿌리가 존재하더라도, 각각의 경우, 그들의 차이는 유사성보다 덜 중요하다.

특별히 연구해야 할 점은 개인 간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다른 영역에서의 배제 사이의 연결이다. 다양한 예시가 다양한 종류의 결핍을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분석을 위해 제공되었다. 이런 접근의 적용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상이한 경제적 경험을 구별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배제의 패턴은 다양하고 아시아 내에서의 다양한 경제적인 경험을 통해 배울 것이 많다. 또한, 최근 아시아에서 발생한 재정 및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연구는 위기의 시작과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악화시키는 사회적 배제의 특정한 역할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아시아의 여러 경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배제에 대한 다른 차이도 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점은 빈곤을 역량결핍으로 보는 것을 강화시킨다. 나는 이 개념이 신중하게 사용된다면, 기본적인 역량의 결핍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따르는 정치적인 이슈들을 평가할 때 사회적 배제의 관점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유럽에 기원을 두고 있는 개념조차도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한 주의와 다소 전문적인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결핍의 관계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결핍으로써의 사회적 배제의 사용은 다른 종류의 결핍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장벽이 될 필요는 없고, 이는 전통적인 분석에서 더 잘 연구될 수 있다. 역량적 결핍내의 사회적 배제는 확대된 분석의 도달 범위를 특히 효과적으로 만든다. 사회적

배제의 관점이 결핍의 문헌에서 감하거나 파괴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첨가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역량결핍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분석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각 조사의 범위와 다양성은 세계화로 인한 변화와 다른 원인으로 인한 변화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달려 있다.

진정한 문제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개념적인 진보로서 기념될만한 것인가가 아니라 실용적인 기준과 공공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시사한 아이디어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다소 혼란스럽고 잘 조직되지 않은 문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우려는 비판적인 조사에 대해 조심스럽게 상기키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의 관점의 기본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의 중요성은 개념의 새로움에 있는 것이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와 능력의 틀 안에서 가장 잘 분석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프레임워크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적절히 비판적인 평가는 빈곤과 결핍의 구성적뿐만아니라 인과적인 분석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의 관점은 진단과 정책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한다.